

립되었으며 경로당과 공용이다.

2. 마을의 역사

1620년경 경주 최씨(慶州崔氏)가 처음 마을을 개척할 때 마을 뒷산의 모양이 말(馬)과 같다 하여 갈마(歇馬)라 하였다고 전한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기성면 봉산리(峰山里)에 편입되었다.

3. 가구 분포

총 64세대가 거주하며 안동 권씨(安東權氏), 김해 김씨(金海金氏), 강릉 최씨(江陵崔氏), 경주 이씨(慶州李氏), 근안 탁씨(近安卓氏), 울진 장씨(蔚珍張氏), 밀양 박씨(密陽朴氏) 등이 분포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갈마봉(歇馬峯)

산(山)의 모양이 말(馬)과 같다 하여 갈마봉(歇馬峯)이라 한다.

제9절 사동리(沙銅里 : 1·2·3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동해(東海)와 접(接)하였고, 서쪽은 마악산(馬岳山)을 경계로 삼산리(三山里)가 있으며, 남쪽은 도지고개를 지나 척산3리와 기성리가 있다. 북쪽은 흘리고개와 진불백사장(白沙場)을 경계로 망양1리가 있다. 사동리는 상사동(上沙銅), 하사동(下沙銅), 주담(周潭)의 3개의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졌으며, 상사동(上沙銅)에는 본 마을 외에 장밭골, 돌담 마을이 있고, 하사동(下沙銅)은 세천(細川)을 경계로 남쪽 마을이 염전마, 북쪽 마을이 장장골이다. 사동1리 마을회관은 2005년에, 사동2리는 2003년, 사동3리는 2003년에 건립되어 현재 경로당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2013년에 사동보건진료소가 개소하였다.

2. 마을의 역사

사동(沙銅)은 이 지역에 모래가 많고, 광물질(鑛物質)이 매장되어 있다고 구전(口傳)되면서 불리게 된 것이라 전한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사동1리, 사동2리, 사동3리로 되었다.

1) 상사동(上沙銅)

약 600년 전에 안동 권씨(安東權氏)가 들어와 지금의 황씨(黃氏) 고기(古基)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 기지(基地)는 게 모양으로 양쪽 집게발로 집을 보호하는 좋은 자리이나 외손(外孫)이 봉사(奉祀)하는 기지(基地)라 하였다. 후에 권씨(權氏)는 사위인 전의 이씨(全義李氏)에 물려주고, 또 그 후 이씨(李氏)는 야성 정씨(野城鄭氏)에게, 정씨(鄭氏)는 평해 황씨(平海黃氏)에게 물려 주었다. 그런데 황씨(黃氏)는 그 당시 딸이 없어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한다. 권씨(權氏)와 정씨(鄭氏)는 떠나고 황씨(黃氏)는 이씨(李氏)와 함께 살았는데 지금은 각성(各姓)들이 살고 있다.

2) 주담(周潭)

임진왜란 때에 안성 이씨(安城李氏)가 피난 와서 거주하며 난을 피했다 하여 엔데미라고도 하고 또는 큰 연못이 있었다 하여 주담(周潭)이라 불렀다 한다.

3) 장밭골

개척 당시에 장씨(張氏)가 살았고 그 후에 영양 남씨(英陽南氏)가 들어와 살다가 지금은 떠나고 없다.

4) 돌담

옛날에 돌아다니던 행상(行商)들이 자신들의 행운을 기원(祈願)하는 풍습으로 길옆 일정한 장소에 돌을 던진 것이 큰 담이 되어 부르게 된 이름이라 하며 파평 윤씨(坡平尹氏)가 들어와 살았다는 전설이 있으나 지금은 군부대(軍部隊)가 주둔하고 있다.

5) 장장골

이곳에서 부자(富者)가 많이 났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은 사동2리로 부르고 있다.

6) 염전마

천일염을 생산하는 염전이 넓게 자리하고 있었다. 후에 마을이 형성되어 사동3리가 되었다.

3. 가구 분포

총 211세대가 거주하며 사동1리에는 71세대, 사동2리에는 62세대, 사동3리에는 66세대가 살고 있다. 사동1리는 평해 황씨(平海黃氏), 전의 이씨(全義李氏), 안성 이씨(安城李氏) 등이 세거하며, 사동2리는 김해 김씨(金海金氏), 순흥 안씨(順興安氏), 안동 김씨(安東金氏) 등이 분포하고 있다. 사동3리는 김해 김씨(金海金氏), 경주 이씨(慶州李氏), 충주 석씨(忠州石氏) 등이 주로 분포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해월헌(海月軒)

해월헌은 조선 중기 최고의 외교관이자 문인인 해월(海月) 황여일(黃汝一)[1556~1622]이 지은 별구(別構)로서 울진지방 영남사림의 배태지이다. 1588년(선조 21)에 사동 마악(馬岳) 아래 건립한 후 1847년(헌종 13)에 후손들이 현 종택 내로 이 건했다. 사동마을은 ‘봉황포란형’의 ‘영동 제일의 명당’으로 이름난 곳이다. 해월헌 현판은 아계 이산해가 썼으며 지봉 이수광, 백사 이항복, 오산 차천로, 백호 임제, 약포 정탁, 상촌 신희 등 당대의 뛰어난 문인들이 이곳을 찾아 남긴 시 편액이 현전한다. 황여일은 영남사림의 종주인 퇴계 이황의 수제자인 학봉 김성일의 제자이다. 백호(白湖) 임제, 오산(五山) 차천로와 함께 ‘조선 3대 시인’으로 칭송받는다. 황중윤(黃中允)[1577~1648]은 황여일의 장남으로, 1612년(광해군 4) 증광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여 정언·헌납·낭청·사서 등의 관직을 지냈다. 한문 소설인 「천군기(天君紀)」 등 6편을 남겼다.

2) 사계당(沙溪堂)

사계(沙溪) 이영발(李英發)[1603~1662]이 학문을 연구하던 서재이자 거주하던 생활공간이다. 이영발은 전의 이씨 평해 입향조인 이명유(李命裕)의 고손이다. 나라가 인정한 효자이자 충신인 주경안의 외손으로 학문과 효행이 뛰어났으며, 특히 시와 부에 뛰어난 글재주를 보였다. 이명유는 1519년(중종 14) 홍천 군수로 재직 중 발발한 기묘사화로 처가인 평해 사동에서 은거했다. 이명유는 이시애의 난을 평정하고 대사헌을 지낸 이서장(李恕長)[1423~1484]의 손자이며, 17세에 사마시에 급제하고 지방관으로 재직하면서 청백리로 이름났다.

3) 서당터(書堂址)

140여 년 전에 동명(東溟) 황중윤(黃中允), 사계당(沙溪堂) 이영발(李英發), 애월당(愛月堂) 남유주(南有周) 세 선생(先生)을 봉안(奉安)하기 위하여 서원(書院)을 건립(建立)하였으

나 대원군(大院君)의 서원(書院)철폐령에 따라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서당(書堂)으로 보호(保護)되어 오다가 지금은 철거되고 터만 남아있다. 한때는 대흥학교(大興學校)의 임시교사(校舍)였다.

4) 대흥학교(大興學校)

1907년 황만영이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사동리에 세운 근대 교육기관이다.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이 되면서 배일사상의 온상이라는 이유로 주진수가 설립한 매화리의 만흥학교와 더불어 폐쇄되었다.

5) 느티나무

돌담마을 하천(河川) 변(邊)에 있는 고목(古木)으로 수령은 300여 년으로 추정된다.

6) 망재(望峴)

사동2리(沙銅二里) 북쪽 동해(東海)에 접(接)한 봉우리이며, 후릿그물어업을 위해 이곳에 올라 고기떼의 이동을 관찰하였다.

7) 봉화대(烽火臺)

망재(望峴) 정상(頂上)에 봉화(烽火)가 있었다고 전한다.

5. 도지고개 전설

해월(海月) 황여일(黃汝一) 선생의 삼취(三娶)가 신행(新行) 올 때 가마가 집 앞 고개를 넘어오는데 둘째 부인이 가마 꼭지를 떼고 오라고 호통치니 신행(新行)에 오던 상객(上客)이 넘어오던 고개를 다시 돌아갔다는 전설이 있어 부르게 되었다 한다.

제10절 삼산리(三山里 : 1·2里)

1. 마을의 자연환경

정명천(正明川) 북쪽 상류를 끼고 골말(麻山), 잔자리(細柄), 배밭(東蠶山), 안누에산(內蠶山), 밭누에산(外蠶)의 5개 자연부락(自然部落)으로 형성(形成)되어 있다. 마을 동쪽으로는 현